

# “우리에게는 다시 없을 교육동지”

순직교육자 추모제 열려  
김승환 교육감 등 참석

‘제36회 순직교육자 추모제’가 8일 오전 10시 전주교육문화회관 내 순직교육자 추모탑에서 열렸다. 순직교육자 추모제는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교육자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행사로,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대한직업자사 전북지사가 후원한다.

이날 추모제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순직 교원 유가족, 김희수 도의회 교육위원장, 이선홍 대한직업자사 전북지사 회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원단체 대표, 교원)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사와 추도사,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김승환 교육감은 추모사를 통해 “순직교육자들은 우리에게 다시 없을 교육동지였고, 유가족에게는 귀히 귀한 아들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요, 아이들의 자상한 아버지이자 사랑으로 품어온 어머니로, 우리는 그 분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기억한다”면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고



‘제36회 순직교육자 추모제’가 8일 오전 10시 전주교육문화회관 내 순직교육자 추모탑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추모를 하고 있다.

귀한 목숨을 바친 순직 교육자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사랑하는 가족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내어 준 유가족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면서 “전북 교육가족은 언제까지나 여러분 곁에서 슬픔을 함께 나누겠다”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한편 순직교육자 추모탑은 1963년 9

월 스승의 날 전신인 은사의 날 제정과 동시에 도내 62개교 2만5,000여 명의 청소년 직업자사 단원들이 추축기 페넬 수집 등으로 추모비 건립 기금을 모아 세워졌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

내부형 1교·초빙형 4교... 10일까지 해당학교로 지원서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2년 9월 1일자 초빙형 및 내부형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요강을 공고하고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삼우초등학교, 이리중앙초등학교, 사매초등학교, 봉남초등학교, 사산초등학교 등 5곳이다. 이중 삼우초는 내

부형으로, 나머지 4곳은 초빙형으로 공모한다.

내부형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지원 자격을 가지며,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임교 재직교사는 지원할 수 없다.

초빙형은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공모 교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서, 인사기록카드,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등의 제출 서류를 갖춰 오는 10일까지 해당학교 교무실이나 행정실로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내용은 교장공모제 운영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서류 접수 후 오는 20~22일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24일~27일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가 이뤄진다. 임용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4년 간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공모지정 학교 및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공모제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있다”면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가능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8일 8층 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0명을 대상으로 202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 전북교육재정을 안내하고 의견을 공유·수렴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의 전문성 및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추진결과와 성과 분석 △2022년도 제1회 분과위원회 운영 결과 △기타 개선 사항 제안 등이 다뤄졌다.

특히 2021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총 41건이 추진됐다. 학생 6



건 학부모 12건, 교직원 및 주민 23건에 총 523,880여만 원이 교부됐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문화적 소양증진(53.7%), 동아리활동

(17.1%), 지역사회협력(17.1%), 가족기능강화(7.3%), 심리정서발달(4.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추진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부액 대비 집행률은 98.2%를 보였으며, 성장률 내역 중 교육운영비 67.6%·운영수당 20.1% 등 사업 성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학생 7건, 학부모 11건, 교직원 및 주민 23건 등 총 41건의 주민참여 제안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2023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다수의 학교 현장에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운영에 만족도가 높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전북교육재정을 더욱 잘 이해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우석대 ‘전국 고교생 문예 백일장’ 개최

7월 31일까지 제출·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진행  
장원 수상자 문예창작학과 입학 시 1년간 등록금 면제

우석대학교총장 남찬현(가 한국문학을 이끌어 갈 고교생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24회 전국 고교생 문예 백일장’을 비대면 형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응모 부문은 운문부 시 3편과 산문부 수필 1편이며, 주제는 자유다.

응모 기간은 7월 31일까지며,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https://munchang.woosuk.ac.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응모작품과 함께 이메일(137dream@hammail.net) 또는 우편(충북 진천군 진천읍 대학로 66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우편번호 27841)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운문과 산문으로 나눠 장원 1명과 차상 1명, 차하 2명, 장려상 10명에게 각각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자 발표는 8월 16일 학과 홈페이지와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문신 문예창작학과장은 “코로나 19로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백일장 개최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비대면 형식으로 문예 공모전을 진행하게 됐다”며 “우리나라 문단을 이끌어 갈 고교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원 수상자가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할 경우 1년간 등록금을 면제받게 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문예창작학과(043-531-2821)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원 1명과 차상 1명, 차하 2명, 장려상 10명에게 각각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자 발표는 8월 16일 학과 홈페이지와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문신 문예창작학과장은 “코로나 19로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백일장 개최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비대면 형식으로 문예 공모전을 진행하게 됐다”며 “우리나라 문단을 이끌어 갈 고교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원 수상자가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할 경우 1년간 등록금을 면제받게 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문예창작학과(043-531-2821)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치위생과, 구강보건 체험활동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는 7일 비전관에서 ‘제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치위생과 학생들은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방법 및 구강보건행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구강건강관련

퀴즈와 치아그리기 체험을 했다.

또한 SNS를 통한 구강보건의 날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및 치과미지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주사치과의사협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전문인력 양성 ‘맞손’

식물병역대학원, 식물검역 자격시험, 교육훈련 위탁 운영... 식물병해충 예찰·검역·방제 전문인력 양성 유기적 협력키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7일 식물병해충 관리 및 검역 실무인재를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식물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리 농·축산업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표준 검역방역 전문기관이다.

전북대 식물병역대학원은 병해충 진단, 관리, 방제하는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병해충 관리 및 검역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식물검역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뿐 아니라 식물병해충 예찰, 검역, 방제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훈련 및 자문·견학 등 상호 인력교류 및 훈련, 교육관련

시설 장비 기술 지원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상호 지원을 위해 유기적

인 협력도 약속했다.

박봉균 본부장은 “식물병해충 관리 및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참여하고, 학생들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대학 중심의 연구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원 총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의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련한 국가사회 현안인 식물병해충 대응 분야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구축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입학식

제6기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전주대학교는 지난 7일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제6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전북도가 지원하는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은 벤처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라는 벤처 슬로건의 의미를 담아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주대 LINC 3.0 사업단과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6기를 맞는 이 과정은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대표자와 관계기관 임원진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리더십을 함양하고, 상생 협력 구축을 목표로 진행된다.

또한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관계기관 간 상생을 위한 소통을 늘리고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구 및 교육도 병행된다.

주중 단장은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은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와 중소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중소벤처 특화사업 분야의 선도적 역할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난민보호 관련 국제 학술대회 개최

사회과학연구소,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 주제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설동훈)는 9일 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 James Lynch),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원)과 공동으로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대한민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해 난민보호 의무에 대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밝힌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아시아 최초 난민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을 주제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페이지 명동)과 Zoom 웨비나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다.

설동훈 소장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등장하고 있는 난민이 편향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시티즌십의 개념과 범주를 재구성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우리 사회와 해외의 경험이 국가적 정책과 국제적 규범의 발전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